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총괄 요약표**

평가 범주	지 표 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실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1) 국민평가(국민체감도 제외)			2	1.498
	(2) 정부 3.0			1.5	1.167
	(3) 경영정보공시 점검			1.5	1.250
	(4) 정부권장정책			5	4.690
	2. 업무효율				
	(1) 사업수행효율성			5	4.924
	3.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1) 재무예산성과				
	㉞ 사업비집행률			1	0.970
	㉟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1	0.926
	(2) 계량관리업무비			5	3.824
	4.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1.5	C		
㉞ 성과연봉제 운영의 적절성	-	-			
(2) 총인건비 인상률			3	3.000	
(3) 노사관리	2	C			
주요 사업	1. 예술창작역량 강화사업				
	(1) 예술지원 프로그램 국민참여도			10	9.257
	(2) 예술창작역량 강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C		
	2. 생활속 예술 활성화사업				
	(1) 문화나눔사업 국민참여도			7	5.597
	(2) 생활속 예술 활성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3	C		
3.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1) 지역지원 프로그램 참여수준			3	2.637	
(2)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2	C			
전체 합계		13.5		45	

1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1) 국민평가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고객만족도 지수 (고객만족도조사결과+ 상대등급별점수)	목표부여	100	74.881	74.881	2	1.498

나. 평가내용

- 고객만족도 지수는 기획재정부 주관 2016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와 상대등급별 점수를 가산하여 산출한다. 상대등급별 점수는 2016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부여한 상대등급이 S등급이면 9점, A등급이면 6점, B등급이면 3점, C등급이면 0점으로 한다.
- 2016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74.881점으로 전년 대비 3.393점 하락하였으며, 기획재정부에서 부여한 상대등급 C등급으로 적용되는 가산점은 0점이며, 최종 고객만족도 지수 74.881점을 획득하였다.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와 상대등급별 점수를 합산하면 평점 74.881점으로 가중치 2.000점 중 1.498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대·내외 이슈 및 부정기사 등을 통한 고객 불만 등이 전반적인 점수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운영 시설 점검 관리 강화, VOC 대응 및 전사 5대 CS전략 과제 시행을 통해 일부 영역에서 개선이 있었다.

- 이러한 노력으로 전년도 저조한 점수를 보였던 운영시설 중 ‘예술극장’은 전년 대비 13.9점 상향된 82.1점, ‘아르코미술관’은 4.7점 상향된 82.1점으로 CS개선과제 추진에 따른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주관처 및 지자체 등과의 협력에 한계를 노출했던 ‘통합문화이용권’(67.1점)과 ‘지역문화예술진흥’(73.2점), 수강생 교육 수요 대응이 미흡했던 ‘창의예술인력센터’(73.6점) 등이 주요 하락 요인으로 작용 하였다.

라. 추세분석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2011년 79.6점, 2012년 86.1점, 2013년 88.6점으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으나, 2014년 86.0점, 2015년 78.3점, 2016년 74.9점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정부3.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정부3.0 이행실적	목표부여	100	77.780	77.780	1.5	1.167

나. 평가내용

- 정부3.0 추진과 관련한 기관의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행정자치부에서 각 기관의 정부3.0 추진기반, 정보공개, 데이터 개방, 정보공유, 맞춤형 서비스 등을 평가하여 실적을 산출한다.
- 4개 부문(추진역량,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9개 지표(확산 노력, 맞춤형서비스, 일하는 방식 개선, 공공데이터 개방 등)로 분류, 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상위기관부터 25%씩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평가결과는 평가대상 119개 기관 중 83위(강소형 57개 기관 중 33위)로 ‘보통’이며, 실적치 77.780점으로 가중치 1.5점 만점에 1.167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전체 9개 세부항목 중 공공 서비스 목록 현행화 실적, 클라우드 기반 업무 혁신 계획 수립, 원문 정보 공개 실적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하였으나, 홍보실적 및 일하는 방식 혁신, 데이터 개방 사례 등은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효과성과 파급성이 다소 미흡하여 감점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라. 추세분석

- 정부3.0은 2015년 신규 추가된 지표이며 2015년은 평가대상 116개 기관 중 42위로 B등급(보통 上), 1.129점을 취득하였으며, 2016년은 평가대상 119개 기관 중 83위로 '보통', 1.167점을 획득하여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3) 경영정보공시 점검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경영정보공시 이행실적	목표부여	100	83.330	83.330	1.5	1.250

나. 평가내용

-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고시하는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 등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경영공시 일제점검 결과에 따른 별점 구간에 따라 가중치 득점구간을 차등 적용한다.
- 별점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부여하며, 가중치 득점구간은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점이 없을 경우 1.5점, 별점 0.1~10.0점의 경우 1.25점, 별점 10.1~20.0점의 경우 1.0점, 별점이 20.1점 이상일 경우는 0.75점으로 배분한다.
- 2016년 경영공시 일제점검 결과 별점 8.00점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별점구

간에 따라 가중치 1.5점 만점에 1.250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정기공시 항목 중 복리후생비 등의 부분에서는 휴가 및 휴직 항목에서 직원의 임신 22~27주의 유·사산 휴가 일수를 허위공시하여 벌점 3점이 부여되었고, 경영평가 지적사항 항목에서 일부 지적내용 누락으로 벌점 1.5점이 부과되었다. 아울러, 재무파트에서는 요약손익계산서 항목에서 첨부파일 내용 일부 누락 오류 등 위와 같은 사유로 총 벌점 3점이 부과되었다.
- 자율공시변경기간 중 기관 자체 수정한 항목은 '15년도 누락된 감사보고서 1건으로, 이에 따른 총 벌점 0.5점이 부과되었다.

라. 추세분석

- 경영공시점검은 2015년 신규 추가된 지표로, 2015년에는 총 벌점이 21점이었으나, 2016년에는 총 벌점 8점으로 전년 대비 13점 감소하였다.

(4) 정부권장정책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목표부여	100	93.805	93.805	5	4.690

나. 평가내용

- 법령상 의무 권장사항 및 주요 국가 정책사업 등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각 부처의 평가결과를 집계한 결과 평점 93.805점을 달성하여 가중치 5점에 4.690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지표명	가중치	평점	득점
1.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	0.700	85.000	0.595
2. 상용형 시간제 근무제 실적	0.300	60.000	0.180
3. 장애인 의무고용	0.500	100.000	0.500
4.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0.500	90.000	0.450
5. 중소기업제품 등 우선구매			
- 중소기업제품	0.500	100.000	0.500
- 기술개발제품	0.200	100.000	0.200
- 여성기업제품	0.400	100.000	0.400
-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0.200	100.000	0.200
- 중증장애인 생산품	0.400	100.000	0.400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생산품	0.400	100.000	0.400
- 녹색제품	0.200	100.000	0.200
6.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	0.500	100.000	0.500
7.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	0.200	82.635	0.165
계	5.000		4.690

- 전체 13개 항목 중 9개 항목에서 만점을 달성하였으며, 특히 장애인 의무고용실적이 30점에서 100점으로, 국가유공자 우선채용실적이 40점에서 90점으로,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이 40점에서 100점으로 대폭 상승하였다.

라. 추세분석

- 정부권장정책 실적은 2011년 4.611점, 2012년 4.307점, 2013년 4.849점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으나, 기관 통합으로 인한 통제불능 요인으로 인하여 2014년 3.655점, 2015년 3.942점으로 감소하였다가 2016년 예년 수준을 회복했는데, 정부정책에 적극 동조하기 위한 법적 의무고용인원 채용 및 중소기업 제품 등 구매노력 등을 기울인 결과 2016년에는 4.690점을 획득하였다.

2] 업무효율

(1) 사업수행효율성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순사업비 평균인원	목표부여(편차)	최고치 : 1,239백만원 최저치 : 602백만원	1,227백만원	98.478	5	4.924

나. 평가내용

- 수탁사업 및 조건부 기부금 수입 11,677백만원 감소, 인건비 등 기타비용 1,879백만원 증가 등으로 평점 98.478점을 기록했다. 이를 가중치 5점으로 환산한 결과 최종 4.924점을 득점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수탁사업 및 조건부 기부금 수입 11,677백만원 감소, 인건비 등 기타비용 1,879백만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타기금 전입금(체육기금, 관광기금 등) 43,578백만원 증가, 경륜경정수익금 배부액 8,449백만원 증가 등으로 순사업비가 전년 대비 38,471백만원 증가하였으며,
- 이러한 순사업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서간 기능조정 및 효율적 인력배분을 통한 인원관리 노력으로 평균인원은 전년수준으로 유지하여, 2016년도 사업수행효율성은 최고목표치 1,239백만원 대비 1,227백만원을 달성하여 평점 98.478점, 득점 4.924점을 획득하였다.

라. 추세분석

- 순사업비는 신규수탁사업발굴, 추경편성, 타기금전입 등으로 인하여 2011년 71,775백만원, 2012년 90,741백만원, 2013년 116,294백만원, 2014년 130,971백만원, 2015년 203,320백만원 및 2016년 241,791백만원으로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다.

- 평균인원은 기관통합, 신규수탁사업 증가 등으로 인하여 2011년 180.7명, 2012년 177.7명, 2013년 183.7명, 2014년 195.1명, 2015년 198.0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었으나, 부서간 기능조정 등 효율적 인력관리를 통하여 2016년 197.0명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1) 재무예산성과

㉠ 사업비집행률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예산현액}}$	목표 대 실적	100	96.289	97.031	1	0.970

나. 평가내용

- 기관 사업비 예산현액의 100% 집행을 목표로 하여 예산계획 대비 집행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목표 대 실적 방식으로 평가한다.
- 2016년 사업비예산현액 280,394백만원 중 269,988백만원을 집행하여 사업비집행률 96.289%로 가중치 1점 만점기준 0.970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주기적(주별, 월별, 분기별) 집행점검 회의를 통해 집행 실적 및 향후 전망을 파악하여 집행 부진사업을 독려, 집행 장애요인 제거 노력 등 체계적 관리로 사업비 예산현액의 불용 및 이월을 최소화함으로써 집행률 96.289%를 달성하였다.
- 2016년 사업비예산현액 중 가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은

97.25%를 달성하였고, 수탁회계는 17년도 계속사업의 차기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실적이 78.50%로 다소 저조 하였다.

라. 추세분석

- 사업비집행률은 2012년 처음 적용된 지표로 2012년 96.933%, 2013년 99.132%로 상승추세에서 2014년 97.500%로 하락하였고, 2015년에는 97.743%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2016년에는 96.289%로 하락하며 등락을 보이고 있다.

㉔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기금운용평가 결과 활용	목표부여	100	92.630	92.630	1	0.926

나. 평가내용

- 「자산운용 체계 및 정책」 과 「자산운용 위험 및 성과관리」 의 비계량평가와 단기자산의 연간 (상대)운용수익률 및 2년간 (절대)운용수익률, 중장기자산의 연간 (상대)운용수익률과 3년간 (절대)운용수익률 및 샤프지수 등의 자산운용실적(성과)을 평가한 지표로, 평가결과 평점 92.630점으로, 가중치 1.000점으로 적용시 최종 득점은 0.926점이다.

다. 항목별 원인

① 자산운용 체계 및 정책

- 자산운용 관련 의사결정체계가 기금운용심의회, 자산운용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으며 위험관리 및 자산운용 조직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 성과평가는 외부 성과평가 전문기관에 성과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어 전문성

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외부위탁운용 부문은 적절한 체계를 갖추고 외부 위탁투자기관의 선정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자산의 중도회수 및 채투자기준을 자산운용지침에 명시하고 연기금투자플 주간운용사와 위탁운용사 성과관리기준을 '금융기관선정 및 관리지침'에 명시하는 등 투자기관의 선정 및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적정유동성 규모를 추정하고 월별 현금성 자금 운용계획 및 실적을 보고하고 있으며 적정유동성 배분 규모가 자산운용지침에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현금성 자금의 성격과 발생원인 및 규모를 파악하여 자금운용계획에 반영하는 등 기회비용을 축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중장기 자산 배분을 위해 자산배분 시나리오별 비교 분석이 가능한 시뮬레이션 방법을 중심으로 평균-분산 최적화 모형을 사용하고 있으며, 단기자산 및 중장기 자산의 만기별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을 자산운용지침에 명시하여 준수하고 있다.

② 자산운용관리(집행)

- 자산운용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2015년에 전문인력을 추가 채용하고 자산운용 전담인력 구조를 정·부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직무역량 교육 및 외부세미나 등을 통해 자산운용 전담인력의 전문성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기관은 외부 위탁투자기관 사후관리 체계가 효율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외부 위탁투자기관의 사후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펀드 점검, 월별 운용보고서 징구 및 외부전문기관 활용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위탁운용사에 대한 주기적 정기평가를 통해 평가 등급 및 조치사항을 설정하고 있다.
- 자산운용 위험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험요인별로 위험을 분류하고 각 위험별 관리방안을 수립·실행하고 있으며, 과거 대체투자로 발생한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발생요인을 파악하고 회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부실자산 중 일부가 계속해서 회수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며, 앞으로도 지

속적인 회수노력이 필요하다.

- 자산운용 성과관리를 위하여 전체 자산을 대상으로 일별 기준수익률 및 목표수익률 대비 운용수익률 차이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계량지표를 활용하여 위험 대비 성과 및 원인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③ 자산운용 위험 및 성과관리

- 부실자산의 회수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등, 당해연도 전체 기금수익률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탁월' 등급을 획득(전체 사업성 기금 중 단 두 곳만 '탁월' 등급 획득)하였으며, 단기자산의 수익률에 있어서도 2014년 이후 크게 개선(2014년 단기자산 수익률 평가 '미흡' → 2015년도 '양호' → 2016년도 '탁월')되었다.
- 운용기관 및 상품은 위험분산을 위하여 적절하게 잘 분산하여 예치함으로써 전년도에 이어 집중도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탁월한 성과를 기록하였다.
- 정부 권장정책 이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연기금투자플 내 '신성장동력' 투자상품의 꾸준한 평잔유지를 통하여 공공성에 대한 확보노력도 역시 탁월한 성과를 기록하였다.
- 다만, 위험자산의 과거 3년간 샤프비율은 '미흡'을 나타냈는데, 이는 리스크가 높은 주식형 자산 비중이 전체 기금 대비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분석되며, 주식형 비중을 낮춰가면서 관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라. 추세분석

- 백분율 환산 기준점수는 부실자산 효율적 관리, 연기금투자플 제도 적극적 활용 등의 노력을 통하여 2011년 16.05점 대비 2012년 54.1점, 2013년 79.5점, 2014년 68.0점으로 회복추세에 있으며, 2015년 및 2016년에는 부실자산 회수 노력 및 단기 자산 수익률 극대화 노력이 결실을 맺어 각각 85.85점 및 92.63점을 획득, 개선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2) 계량관리업무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관리업무비 매출액	목표부여(편차)	최고치 : 0.006 최저치 : 0.319	0.098	76.474	5	3.824

나. 평가내용

- 기관의 관리업무비의 절감노력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매출액 대비 관리업무비를 목표부여(5개년 편차) 방식으로 평가한다.
- 2016년 계량관리업무비 실적은 0.098로 평점 76.474점을 달성하여 가중치 5점 기준 3.824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수탁사업 및 조건부기부금 등 수입 11,677백만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타기금 전입금(체육기금, 관광기금 등) 43,578백만원 증가 및 경륜경정 수익금 배부액 8,449백만원 증가 등으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 40,350백만원 증가하였으나,
- 골프장 운영 관련 비용 556백만원 증가, 골프장 리모델링 관련 소송 총당부채 104백만원 발생, 장기투자증권 처분손실 392백만원 발생 등으로 관리업무비가 전년 대비 1,052백만원 증가하여 2016년도 계량관리업무비 실적은 최고목표치 0.006대비 0.098로 평점 76.474, 득점 3.824점을 획득하였다.

라. 추세분석

- 매출액은 타기금 전입금 및 추경편성 등으로 인해 2011년 136,028백만원, 2012년 147,957백만원, 2013년 149,161백만원, 2014년 175,435백만원, 2015년 237,805백만원, 2016년 278,155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관리업무비는 기관의 경상운영비 합리적 관리를 통하여 2011년 53,926백만원,

2012년 46,624백만원, 2013년 25,824백만원, 2014년 32,393백만원, 2015년 26,319백만원으로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골프장 운영관련 비용 및 장기투자증권 처분 손실 등으로 인하여 2016년 27,371백만원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4]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기관은 정규직 기준 1인당 복리후생비가 2015년 1,155천원 수준에서 2016년 1,194천원으로 전년 대비 39천원, 3.38% 증가하였고, 인건비대비 1인당 복리후생비는 2015년 2.1%에서 2016년 2.2%로 증가하였으며 변동사유는 선택적 복지비 소진율 차이에 따른 것으로 확인된다.
- 기관은 기타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히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개선한 사실이 확인된다.
- 기관은 전년도 지적사항인 설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부분, 개인사정으로 휴직 요청시 6개월 이내 휴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부분, 비위행위자에 대한 직위해제가 재량으로 설정되어 실질적 퇴직금 감액과 관련하여 직위해제자에 대한 보수 감액규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 퇴직금 감액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부분, 근로기준법과 상이한 휴일수당 계산방법, 휴직·사망한 때에는 당해월 보수전액을 지급하는 부분은 개선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10년간 근속한 직원이 휴직을 요청하여 휴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부서간 유기적 점검 및 확산을 통한 방만경영 개선과제 발굴 및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공개, 초과근무수당 내역 등을 공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은 확인된다.

- 또한, 육아휴직 복귀자 조기출퇴근제 도입, 유연근무제 확대, 사내도서관 건립 및 운영, 1:1 금연클리닉 운영 등 비금전적 복리후행제도의 도입노력을 기울여 복리후생 만족도 수준의 상승과 가족친화 기업인증 취득 등의 결과를 이루어 낸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전 직원 대상으로 감액기간 2년에 임금지급률 1차년 70%, 2차년 55%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으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총당률은 매년 100%를 초과하며 5년간 신규채용 규모는 9명에 이르며 별도직군의 별도정원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명문화, 명예퇴직 제한 제도를 설정하였다.
- 기관은 임금피크 대상자를 위한 9개의 별도직무를 개발하였고, 2016년 임금피크대상자는 4명이며 16년 정년연장자 증가분 4명에 해당하는 4명을 신규채용하였으며, 임금피크대상자에 대하여 별도의 업적평가를 실시하고 경영평가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별도직무에 대한 직무기술서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 별도직무 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이 없는 부분은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고졸자 입사후 3년 경과시 대졸자와 동일임금을 지급하며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의 선택적복지, 건강검진등 복리후생에 있어서 동일기준을 적용 지급하고 있다. 기관은 2015년 까지 무기계약직 보수는 정규직 대비 80% 수준이었으나 2016년부터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은 동일한 직급별 초임연봉 보수테이블을 적용하여 동일한 연봉을 지급하고 직급과 승진도 동일하게 운영키로 하였다.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3.7% 수준으로 이는 바람직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보수 및 복리후생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로 평가한다.

(2) 총인건비 인상률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frac{\text{실적년도총인건비} - \text{전년도총인건비}}{\text{전년도총인건비}}$	목표부여	3.0%이내	2.110%	100.000	3	3.000

나. 평가내용

- 전기 대비 당기 인건비 인상률의 정부 예산관리 기준(3.0%내)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 2016년도 인건비 인상률은 2.110%로서 정부 예산관리기준의 인건비 인상률 한도를 준수하여 가중치 3점 대비 3.000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퇴직 및 신규입사, 승진 등 월별 인원변동에 따른 증원소요인건비와 임금피크제 시행에 의한 별도직군 승진시기 차이에 따른 인건비 효과 예측 등 인건비 인상요인을 변수로 적용한 통합시물레이션 관리로 임금인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여 총인건비인상률 목표치 3.0% 이내인 2.110%를 달성하였다.

라. 추세분석

(3) 노사관리

- 기관은 합리적인 노사관계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기관의 비전과 목표로부터 4대 전략방향 및 9대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이로부터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하며 그 결과를 환류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전략관리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기관은 노사관계 전략의 수립에 있어서 중장기 관점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되고, 또한 전략의 수립·실행·평가단계의 전문

가와 협업이 쟁점사안에 대한 자문 등 소극적 협업에 그치고 있어서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 기관은 전년도 경영평가에서 노사갈등 사전예방 및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노사갈등 매뉴얼을 개발하였고, 노사공동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있으므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관이 노사갈등 매뉴얼 개발을 통해 사전에 갈등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긍정적이나, 갈등유형별 예방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일반적 조정제도 등을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
- 기관은 전년도 경영평가에서 노사관리 역량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노사관계 핵심인재를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한 경력개발계획(CDP)을 구축 및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관 교육체계와 연계한 노사관계 향상 역량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직위제를 도입하는 등 노사관리 전문성을 제고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기관은 의사소통프로그램의 체계성 강화를 위해 소통채널에 대한 점검 및 환류를 더욱 고도화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전반적인 의사소통 만족도를 측정하는데 머물러 있으므로 향후 소통채널별 효과성 측정을 통해 소통채널 환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은 노사관계 역량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노사관계에 관한 교육과정이 부족하고, 현재 교육과정별 교육수료인원이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제외하면 극히 적어서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도 판단되므로, 향후 노사관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육대상 인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한편, 노사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전문가 자문 및 전문직위제를 도입한 것은 긍정적이나 중장기관점에서 내외부 전문가 활용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전년도 지적사항인 기관의 단체협약 제31조의 부당노동행위로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받은 조합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구제명령을 받은 즉시 징계를 무효처분, 원직복귀, 보수 소급지급, 해고기간 근속년수

산입의 조치를 취하고 기관이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부분 중 판정서 또는 결정서 접수 당일부로 징계 무효처분을 판정서 또는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10일이내 효력을 정지하는 것으로 개선하였고, 육아휴직 신청자격은 법령에 따라 보다 확대하여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기관은 근로시간 면제자를 평가에서 제외하며 연봉, 승진,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활용되는 평가결과는 중간등급인 b등급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확인된다. 기관은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시간 사용계획과 활동내역을 제출받고 있으나 월별 사용내역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전산에 의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사관리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로 평가한다.

2 주요사업

- 기관은 2015년도와 동일하게 2016년도에도 예술창작역량 강화사업, 생활속 예술 활성화사업,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등 3개 주요사업을 추진하였다. 주요 사업들은 기관의 설립목적과 비전, 핵심가치 및 중장기 전략방향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선정되었다.
- 기관은 2015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비계량 성과평가를 자체 및 외부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환류활동에 따라 2016년도 계획수립에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사업별 모니터링을 통해 집행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주요사업별 계량지표의 경우,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모든 지표의 목표가 편차부여 방식으로 설정되어 도전적인 목표가 주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참여관객수와 만족도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신설하는 등의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1 예술창작역량 강화사업

(1) 예술지원 프로그램 국민참여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예술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 수준(평점) $\times 0.8$ + 운영극장 공연참여관객수(평점) $\times 0.1$ +
예술지원프로그램 만족도(평점) $\times 0.1$

변수1 = 예술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수/예술인(단체)지원 집행총액 평점

변수2 = 운영극장 공연참여관객수 평점

변수3 = 예술지원프로그램 만족도 평점

세부지표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점
예술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 수준	목표부여 (편차)	최고:507.719 최저:206.176	485.498	94.105	8	9.257
운영극장 공연참여관객수	목표부여 (편차)	최고:322,650 최저:193,120	378,051	100.00	1	
예술지원프로그램 만족도	목표부여 (편차)	최고:100.00 최저:77.885	92.512	72.913	1	

나. 평가내용

- 예술 창작역량 강화사업은 민간경상보조금이 지원된 ① 예술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관객수준과 ② 운영극장 공연참여관객수 ③참여관객 만족도를 평가하는 세부지표로 분리하여 평가하였다.
- 예술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 수준은 예술창작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액 1백만원 당 참여관객 수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2016년도 실적은 전년도 356.947(명/백만원)보다 상승한 485.498(명/백만원)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최고목표인 507.719(명/백만원)을 달성하지 못하며 최종 평점 94.105점으로 평가되었다.
- 운영극장 공연참여관객수 실적은 총 378,501명으로 최고목표인 322,650명을 초

과 달성하면서 평점 100점을 기록하였고, 예술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 만족도 실적은 최고목표인 100점을 달성하지 못하고 92.512점에 그쳐 평점 72.913점을 기록하였다. 상기 결과를 토대로 각 세부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하한 최종 득점은 9.257점이다.

다. 항목별 원인

- 예술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 수준의 경우, 예술인력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담당 조직을 확대하고, 예산과 인력을 집중한 결과 관람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우수 창작물의 발표횟수가 증가하였고, 대규모 야외 예술축제 확대, 온라인 사업 신규개발 등의 사업구조 개선 노력에 힘입어 전년보다 39% 증가한 17,325,956 명의 관람객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최고목표치인 507.719(명/백만원)에는 4.4%가 미달되었다.
- 운영극장 공연참여관객수 실적은, 대학로의 공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극장 재대관 사업의 실적이 향상되었고, 자체 제작공연의 관객이 전년 대비 3.5배 증가한 41,997명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실적 증가에 따라 목표를 17.2% 상회하였다.
- 예술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 만족도는, 분야별 예술지원사업의 창작물의 예술적 수준이 향상되고, 온라인 등을 통한 홍보 확대 노력을 통해 관객들에게 사전 정보제공과 실시간 피드백 등이 가능해지며 전년 대비 1.523점이 증가하였으나, 최고목표치인 100.000점에는 미달하였다.

라. 추세 분석

- 예술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 수준은 (2011년) 137.279명/백만원 → (2012년) 180.481명 /백만원 → (2013년) 186.232명/백만원 → (2014년) 231.306명/백만원 → (2015년) 356.947명/백만원 → (2016년) 485.498명/백만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 운영극장 공연참여관객수는 해당시설이 2014년에 기관으로 통합되면서 2015년 신규 지표로 반영되었으며, (2015년) 257,885명 → (2016년) 378,051명으로 전년

대비 46.60% 증가하였다.

- 참여관객 만족도는 (2011년) 80,800 → (2012년) 75,300 → (2013년) 76,400 → (2014년) 85,839 → (2015년) 90,989 → (2016년) 92,512로 2012년과 2013년에 70점대로 하락한 이후 2014년부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예술창작역량 강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기관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술창작역량 강화사업’, ‘생활속 예술 활성화사업’,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이라는 3개 주요사업을 선정하였다. 기관의 인력과 사업비 비중, 정책 우선순위 등 3대 기준에 따라 핵심업무군을 도출하고, 기관의 미션, 비전 및 전략목표와 연계하여 3개 주요사업을 선정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전체 사업비의 86.0%를 3개 주요사업에 배분하여 사업 성과창출의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예술창작 역량강화’ 관련 조직을 단계와 장르에 따라 유기적으로 구성·안착하는 등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주요사업1의 예산이 낮아 청년예술가 지원을 위한 사업이 소홀하게 다루어지지 않도록 대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은 대형포탈 생중계 등 새로운 확산채널 지원 및 다각화를 통한 관객개발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지속가능한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협력모델 구축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특히,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신설로 예술현장 수요를 충족하는 융합·통섭 인력양성시스템 구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청년예술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및 취업여건 개선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문예진흥기금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일부 예술가 지원 배제 등 부

적절한 사업 추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술창작 지원 및 확산 사업에서 우수작품에 편중 지원되는 경향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③ 주요사업별 비계량적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기관이 설정한 총 4개의 계량지표들 중 3개가 계획 대비 100% 이상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나, 청년예술가 경험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 우수예술 창작 및 국내외 수요창출 노력과 성과 등의 비계량지표들은 성과달성을 위해 보다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비계량지표인 청년예술가 경험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의 경우 청년예술인턴 정규직 전환비율이 전년 대비 0.5%p 증가에 그쳐 이에 대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④ 주요사업별 환류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주요사업 선정에 있어 계획수립, 실행, 점검 및 평가, 환류로 이어지는 자체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 주요사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자체 평가와 연계한 환류활동을 통해 개선 및 차년도 계획에 반영한 노력이 인정된다.
- 기관은 블랙리스트 논란 등 문화예술 지원심의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지적에 대해 심의위원회 구성부터 결과 수용단계까지 예술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절차와 제도를 개선한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지원사업 수혜작가의 작품집 미발간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추진하여 미발간율을 63%에서 30%로 감소시킨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⑤ 주요사업 범주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수준은 적절한가?

- 기관의 목표 달성이 기관의 경영노력보다는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

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전사적인 평가체계와 연동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지표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예술지원 프로그램 국민참여도 지표의 경우, 만족도 조사 수행업체의 전문성 담보를 위해 조사업체 선정 절차를 개선하는 등 지표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예술창작역량 강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C”로 평가한다.

2 생활속 예술 활성화사업

(1) 문화나눔사업 국민참여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생활속예술활성화사업 참여관객 수준(평점)×0.9 + 생활속예술활성화사업 만족도(평점)×0.1

변수1 = 생활속예술활성화사업 참여관객수 / 생활속예술활성화사업 집행총액 평점

변수2 = 생활속예술활성화사업 만족도 평점

세부지표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점
문화나눔사업 참여관객 수준	목표부여 (편차)	최고:96.939 최저:64.884	88.013	77.723	6.3	5.597
문화나눔사업 만족도	목표부여 (편차)	최고:90.016 최저:82.670	90.558	100.00	0.7	

나. 평가내용

- 생활 속 예술활성화 사업은 ① 문화나눔사업 참여관객 수준과, ② 참여관객 만

족도를 세부지표로 분리하여, 각각 목표부여(편차)방식으로 평가하였다.

- 문화나눔사업 참여관객 수준은 민간경상보조·자치단체경상보조 1백만원 당 참여관객 수를 평가하는 지표로, 2016년도 실적은 88.013(명/백만원)으로 최고목표인 96.939(명/백만원)에 90.79% 수준에 해당하는 실적을 기록함으로써 평점 77.723점으로 평가하였다.
- 문화나눔사업 참여관객 만족도 실적은 경제적, 지리적 소외계층별로 문화복지사업 수행에 대한 질적평가를 측정하고자 도입한 지표로, 2016년도에는 최고목표인 90.016점을 상회하는 90.558점을 획득하여 평점 100.00점을 기록했으며, 위 결과를 토대로 각 세부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최종 득점을 5.597점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문화나눔사업 참여관객 수준 지표의 경우, 전국의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문화순회 기획사업(100억원 규모)을 신규 추진하고, 저소득층에게 개인당 5만원의 문화누리카드 포인트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여행상품, 운송수단 등 공공기관/민간 업체와의 제휴를 통한 할인 서비스 혜택 등을 강화하여 결재 건수가 '16년 4,780,471건으로 전년도 4,175,186건 대비 14.5%가 증가하는 등의 실적 증가 요인이 있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최고목표인 96.939(명/백만원)을 달성하지 못하며 평점 77.723점을 기록하였다.
- 문화나눔사업 참여관객 만족도는, 통합문화이용권이 사용가능한 품목확대 및 가맹점 전수조사를 통한 관리 강화 등의 사용 편의성 개선 노력과 서해 5도 지역민 등 기관 자체의 신규 순회 방문처 발굴 노력에 힘입어 전년 대비 4.215점 상승한 90.558점을 기록하였다.

라. 추세분석

- 문화나눔사업 참여관객 수준은 (2011년) 60.717명/백만원 → (2012년) 59.095명/백만원 → (2013년) 65.379명/백만원 → (2014년) 70.948명/백만원 → (2015년) 80.912명/백만원 → (2016년) 88.013명/백만원으로 2012년 소폭 하락한 이후 연

평균 10% 내외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문화나눔사업 참여관객 만족도 결과는 (2011년) 80,820점 → (2012년) 82,067점 → (2013년) 81,727점 → (2014년) 83,960점 → (2015년) 86,343점 → (2016년) 90,558점으로, 기존에 문화, 관광, 체육 등 3개로 분리되어 운영되던 문체부의 바우처 사업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시범운영과 시스템 재구축 등을 거치며 고객 만족도가 소폭 하락한 2013년도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다.

(2) 생활속 예술 활성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기관은 대내외 환경 분석 및 글로벌 벤치마킹을 통해 사업전략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른 GAP 분석과 벤치마킹 전략으로 '문화사각지대 해소'와 '경제적 소외계층 문화생활 지원'이라는 평가대상 사업을 선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 기관은 SWOT 분석, 글로벌 벤치마킹 및 GAP 분석을 통해 경제적 소외계층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문화향유 수요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사업범위를 경제적 소외계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함에 따라 문화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외계층 대상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은 '문화가 있는 날' 사업 내실화를 통해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문화누리카드의 경제적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기회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과 협업 체계 구축으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문화누리카드의 부적정 업소 사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③ 주요사업별 비계량적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기관이 설정한 계량지표는 계획 대비 100% 이상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나, 문화누리카드 신규 가맹점이 문화누리카드의 취지에 합당한 업종이 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소외계층이 많은 농어촌 지역의 신규 가맹점 확보에 보다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비계량 성과지표인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만족수준 제고 노력과 성과의 경우, 가맹점 확대 이외에 경제적 소외계층이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하여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④ 주요사업별 환류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주요사업 선정에 있어 계획수립, 실행, 점검 및 평가, 환류로 이어지는 자체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 주요사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자체 평가와 연계한 환류활동을 통해 개선 및 차년도 계획에 반영한 노력이 인정된다.
- 기관은 일반인의 생활예술 향유를 포함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를 추진하는 등의 노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문화누리카드의 가맹점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근본적 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⑤ 주요사업 범주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수준은 적절한가?

- 기관은 계량지표 개발을 위해 다양한 기법을 통해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관리를 위해 인력 및 예산 비중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효율

- 적으로 지표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기관의 목표 달성이 기관의 경영노력보다는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전사적인 평가체계와 연동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지표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생활속 예술 활성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C”로 평가한다.

3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1) 지역지원 프로그램 참여수준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지역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 수준(평점)×0.9 + 지역지원프로그램 만족도(평점)×0.1

변수1 = 지역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수/ 지자체(재단) 집행총액 평점

변수2 = 지역지원프로그램 만족도 평점

세부지표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점
지역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 수준	목표부여 (편차)	최고:624.846 최저:417.706	594.596	88.317	2.7	2.637
지역지원프로그램 만족도	목표부여 (편차)	최고:100.000 최저:80.062	96.013	84.002	0.3	

나. 평가내용

-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지원된 ① 지역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 수준과 ② 참여관객 만족도를 세부지표로 분리 측정하여 목표부여(편차)방식으로 평가하였다.

- 지역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 수준은 지역지원프로그램에 투입된 1백만원 당 참여관객 수를 평가하는 지표로, 2016년도 참여관객 수준은 전년도 521.276(명/백만원) 대비 14.07% 상승한 594.596(명/백만원)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최고목표인 624.846(명/백만원)에 95.16% 수준에 해당하는 실적을 기록함으로써 평점 88.317점으로 평가하였다.
- 지역지원프로그램 만족도는 전년 대비 5.728점이 상승하며 96.013점을 획득하였으나, 최고목표인 100.000점에 미달하며 평점 84.002점을 기록하였다.
- 위 결과를 토대로 각 세부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의 최종 득점을 2.637점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지역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 수준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및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인프라와 활동 인력 등 전반적인 양적/질적 기반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교육사업, 각 지역별 인물, 역사 소재 등을 활용한 문화예술 킬러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비수도권 거주자들이 보다 쉽게 양질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관의 노력을 바탕으로 연간 14,585,428명의 관람객을 기록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14.07%가 증가한 것으로 관람객 규모가 확대되었으나, 당초 최고목표에는 미치지 못하며 평점 88.317점을 기록하였다.
- 지역지원프로그램 만족도의 경우, 주민 참여형 공동체 문화조성 사업의 운영 내실화와 지역문화재단과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 문화재단 혹은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한 지역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와 다양한 기획사업을 추진하면서 6.34%(5.728점 상승)라는 타 주요사업 대비 가장 큰 만족도 증가를 기록했으나, 최고목표인 100.00점을 달성하지는 못했다.

라. 추세분석

- 지역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 수준(1백만원 당 참여관객 수)은 (2011년) 321.655명/백만원 → (2012년) 409.809명/백만원 → (2013년) 383.284명/백만원 →

(2014년) 436.006명/백만원 → (2015년) 521.276명/백만원 → (2016년) 594.596명/백만원으로 2013년도를 제외하고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지역지원프로그램 만족도는 (2011년) 80.800 → (2012년) 77.800 → (2013년) 78.500 → (2014년) 85.044 → (2015년) 90.285 → (2016년) 96.013으로 '2012년 하락 이후 연평균 6.95%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기관은 대내외 환경 분석 및 글로벌 벤치마킹을 통해 사업전략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른 GAP 분석과 벤치마킹 전략으로 '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 '지역 문화 브랜드 창출' 및 '지역협력체계 구축'이라는 평가대상 사업을 선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 기관은 SWOT 분석, 글로벌 벤치마킹 및 GAP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 지원, 성과 대외확산을 위해 기업·지자체 협력 강화를 추진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평가대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콘텐츠 발굴과 주민 참여형 공동체 문화 조성으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과 지역간 예술 격차가 존재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은 지역문화재단-공공기관-민간(기업)의 협력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지원 확대에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전문인력육성을 대부분 온라인 교육을 통해 해소하는 등 교육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 전문인력 육성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③ 주요사업별 비계량적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기관이 설정한 계량지표는 계획 대비 100% 이상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나, 지역 정체성 확보 및 주민 참여를 통한 문화콘텐츠 발굴 및 자발적 공동체 문화 형성에 보다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협력네트워크 참여기관 재참여율과 협력사업 지방(서울이외) 지원 비율이 20%대에 머물고 있어, 이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적극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④ 주요사업별 환류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주요사업 선정에 있어 계획수립, 실행, 점검 및 평가, 환류로 이어지는 자체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 주요사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자체 평가와 연계한 환류활동을 통해 개선 및 차년도 계획에 반영한 노력이 인정된다.
- 기관은 문화예술분야 지방 홀대가 심각하며 지역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근본적 개선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⑤ 주요사업 범주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수준은 적절한가?

- 기관은 계량지표 개발을 위해 다양한 기법을 통해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관리를 위해 인력 및 예산 비중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등 효율적으로 지표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기관의 목표 달성이 기관의 경영노력보다는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전사적인 평가체계와 연동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표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C”로 평가한다.